

이명박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너무나 자주 들게 되는 '선진화'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새삼 다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혀 나쁜 뜻이 있을 수 없는 '선진화'라는 말... 혹시 그 말에 휩쓸려가다가 어떤 터무니없는 결과를 맞을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드는 것은 나쁜일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경계를 살피겠다는 말 속에 숨어있을 수 있는 어두운 그늘을 걱정해야 한다는 글을 이 난을 통해 이미 한다는 사실이 다시 떠오른다.

이제 출범한 이명박 정부나 내거는 구호들이 그 좋은 의미대로 성취되기만 한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다. 아니 어떤 정권이건 그들이 내 걸었던 구호를 진정하게 성취했는가에 대하여 똑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데는, 다른 역대 정권들에 대한 것 보다 좀 더 큰 걱정과 의구심이 있다. '오렌지'를 '오렌지'로 발음해야 한다는 영어에 대한 이상 아릇한 콤플렉스를 가진 인사를 비롯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그것을 과감하게 관철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독선에 비슷한 신념을 지닌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포진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가진 과감한 추진력이라는 것이 혹 이러한 모습을 띄고 드러나는 것은 아닐지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바꾸고, 미래의 후손들이 누려야 할 국토 환경을 바꿀 '대운하'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응  
건국대 교수

**선진화와 민주적 이념**

같은 중차대한 문제까지도 그런 식의 과감한 추진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선진화는 과거를 현실팍처럼 벗어던지고, 조자룡 현 칼 쓰듯 과감하게 권력을 휘둘러 처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우리 오랜 전통과 민족의 정체성을 내면시키고 서구화 일반도, 그것도 극단적인 미국 편향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정말 조심스럽게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 철저적 정의를 지키면서 진정한 민주적 이념을 세워나가는 일이 그 첫 번째의 과제야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에 급격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드물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그런 빠른 발전 가운데서도 가장 뒤진 곳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정치영역 아니었던가? 정치만 제대로 되었어도 우리의 발전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을 수도 없이 들었으며,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비하하는 유머가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선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정치의 선진화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고 또 조직화하는 정당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우

는 것이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올바른 국가의 지향점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파행과 강행을 무릅쓰는 선진화와 개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데는 분명 그에 대한 큰 기대가 있을 것이다. 그 기대는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힘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뽑아준 것이요"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바람을 우리 현실에 맞게 구체화 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큰 책임이다. 큰 방향에 대한 바람이 구체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그런 바람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요, 가장 모범적인 답을 내기 위해 온 국민의 여망을 다시 한 번 모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런 행보를 요구하면 결국 새 대통령의 큰 장점이 빛을 발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으리라. 그러나 결정과정의 신중함이 없는 과감한 추진이 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것을 막는 길은 무엇보다 정치의 선진화를 통해 온당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의 기틀을 잡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각료의 임명과정에서부터 드러나는 파행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포살과 결계 정신 고양해야**

불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수행의 종교'란 점이다. 절대존재에 대한 기도와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하여 '완전한 인간(붓다)'을 이루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 물론 재가불자들에게도 수행이 강조된다. 수행과 수행이라는 말에 개념상의 차이는 있지만 재가불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종교적 덕목은 수행이다.

수행자에게 있어 계율은 육신을 지탱하는 골격과 같은 것이다. 계율이 무너지면 수행자 개인의 수행도 무너지고 교단도 무너진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계율의 근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이 과연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계율의 근본정신에 얼마나 투철하냐에 따라 불교의 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몇 가지 조목에 대한 의견차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계율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조계종은 '포살과 결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포살은 계율에 입각한 삶을 점검하고 반성(참회)하는 경건한 의식이고 결계는 계율을 제대로 받들어 지키겠다는 교단적 합의를 유지하는 틀이다.

조계종이 수행종풍 진작을 위해 마련한 이 법이 계율정신에 입각한 울퉁한 중단의 틀을 유지하는 골간이 되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관계기관 관리 틀 새로 짜라**

최근 불교계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말년'에 접어든 제17대 국회본회의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리법 인상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을 문화재청이 갖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조계종과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슬며시 무시되어버린 것이다.

뒤늦게 안 조계종은 발근했고,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까지 거북해 하는 지경에서 일부 의원들이 '번인동'라는 절차를 통해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 '헤프닝' 같은 사건으로 인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발각 뒤집혔다. 실장·국장님과 담당 총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무안한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살마'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 뭔가 쓸쓸함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계종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정부 부서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국립공물관리공단 등이지만 국회 또한 많은 사안에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정각화나 각 정당 불자회와 종단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기관과의 협의 창구를 신속하게 열어 더 이상 미흡함을 보이지 않으려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관련 정보를 취합관리하고 국회와 국회의인의 각 불자회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전담자가 없을 때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어린애 대응하고 말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해요**

"교수님, 차 좋아하시죠?"  
30대 여자법우가 묻는다.  
"네. 그런데 왜요?"  
법우는  
"어떤 차를 주로 드세요?"  
하더니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헤해..., 사랑차 드셔 보셨어요?"라고 한다.  
"사랑차요? 그런 차도 있어요?"  
법우는 "네.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마셔야 돼요."  
마음으로요?  
미소가 절로 나왔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⑤3 마음으로 마시는 차**

1. 성냄과 불평은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 집니다.
2.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 후 깨끗이 씻어 말립니다.
3. 짜증은 곱질을 벗기고 반으로 토막을 낸 후에 넓은 마음으로 접어 냅니다.

4. 이제 마지막 맛내기입니다.
6. 기쁨과 감사로 잘 짓고 미소를 몇 개 띠운 후 깨끗한 감사의 잔에 부어서 따뜻하게 나눠 마셔요.

재료가 준비 되었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감사 · 회향의 마음 '최고맛'**

결국 마음으로 만드는 차입니다. 그런데 차 재료준비가 의미심장합니다. '성냄과 불평은 뿌리를 잘라낸다' 이 말은 곧 화내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

진치를 삼독에 비유하셨습니다. 차에 만일 독을 넣는다면 우리는 질색하며 절대 마시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마음속에 풀어오르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독소는 방지하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을 넣은 채 좋은 마음의 향이나 수행의 맛을 기대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음으로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다' 이것은 잘못된 이상, 즉 내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증은 넓은 마음으로 접어낸다' 우리에겐 인연 따라 오는 경계에 짜증을 내기보다 마음의 인력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감사의 잔에' 차를 부어야 합니다. 어떤 잔에 따르는가에 따라 차맛이 전혀 달라짐은 잘 알고 계시 거예요. 감사하게 회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사랑도 제 맛이 나질 않는답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 맛있게 사랑차 한잔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수경(경국대 선학부 강사)

**사랑차 만들기**

먼저 재료를 준비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에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리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1-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등산객은 스니저도 팔꿈치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통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찬 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팔꿈치 L보통까지 통증이 와서 불편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 나의 고생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글로벌에이크림을

바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면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니저도 팔꿈치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통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찬 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팔꿈치 L보통까지 통증이 와서 불편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 나의 고생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글로벌에이크림을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1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顔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뺨 빨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1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